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전면 해제”

도의회 의장단 “방역대책 상황실 방문” 방역대책 강화주문
5월이후 추가 발병없어 종식 선언! AI 청정화에 주력 계획



▲ 충남도의회 의장단(의장 김문규)이 지난 4월 25일 충남도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김홍빈 축산과장으로부터 AI방역대책 보고를 듣고 있다.

지난 4월 22일 논산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6월 현재 추가 신고가 없어 전면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충남도의회에서는 AI퇴치를 위해 각종 대책강구와 집행부의 방역 대책등을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의장 김문규)은 4월

25일 의장실에서 논산에서 발생한 AI(조류 인플루엔자)와 관련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의장단은 이날 농수산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AI가 충남도에 확산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특별방역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AI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 AI

발생 상황과 방역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황근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충남전역에 초동조치가 필요하다”며 “초동방역을 위한 정확한 예찰강화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유병기 부의장은 “AI 발생 살처분 농가는 어떻게 되냐”며 물은 뒤 “정부가 양계도축을

바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철민 농경위 위원장은 “AI발생 3km이내 살처분, 10km이내 이동제한하고 있는데 AI신·변종에 대한 외국의 사례가 있는지, 한국에서도 신·변종 발생에 대한 대책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순평 운영위 위원장은 “살처분으로 인해 지하수, 토양 등 2차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세울 것을 주문했다.

백낙구 운영위 부위원장은 “AI발생 살처분 지역에 투입인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군인, 경찰, 공무원 등 방제인력 기피현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홍빈 축산과장은 “긴급 대책 등을 수립해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했다”면서 “충남양계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5월 20일, 제215회 도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 구내식당(금강홀)에서 이완구도지사, 도의원, 간부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리고기 시식회를 가졌다.

이날 김문규의장은 “쇠고기 수입개방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시름에 빠져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리고기 시식회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가금류 등 소비 촉진에 앞장서 우리 모두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식회에 참석자들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조속한 시일내 소멸되기를 바라며 예전과같이 닭고기와 오리 고기 등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한편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오리고기 등 소비가 위축된 상태라며 오리 등 가금류는 75℃로 5분이상 끓여 먹으면 인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12월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던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예전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영) 위원들이 지난 4월 17일 청양공설운동장을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김기영
(예산2, 한나라)

▶ 우리농업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이 중요한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



최의환
(청양2, 한나라)

▶ 2007년도 공사실적을 보면 자재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는데 이번 10%의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전문인력 반드시 확보할 것을 주문.



박공규
(공주2, 자유선진)

▶ 미래 전략사업 본부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번 회기에서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박찬중
(금산2, 무소속)

▶ 인삼해외 홍보를 위해 도차원에서 실시하기 위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인삼해외 마케팅은 국가, 도차원에서의 전폭적인 홍보의 필요성 주문.



백낙구
(보령2, 한나라)

▶ 인삼산업관련 민간위탁 후 조직은 그대로 둘 경우 업무의 중첩성이 있어 비용은 이중적 부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송선규
(서천1, 한나라)

▶ 지하수 난개발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는데 지역 개발세 부과시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대책강구 요구.



유익환
(태안1, 자유선진)

▶ 그동안 인삼해외 개척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고, 금번 민간위탁 사무를 어디에 위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질의.



이선자
(비례, 한나라)

▶ 2009년도 도민체전 위한 체육시설 등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와 도민체전 개최후에 공설운동장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질의.



정종학
(천안4, 한나라)

▶ 인삼은 전국에서 재배되는 작물로 도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해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차원에서의 홍보 실적은 무엇인지 질의.



황우성
(연기2, 한나라)

▶ 동북아시아를 대비하여 대전·충청권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건설되는 수도권 전철화 사업방안 제기.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차성남) 위원들이 지난 5월 14일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로부터 교사연구실에서 수업진행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차성남
(서산2, 자유선진)

▶ 전국의 영재들이 수업을 받는데, 성적문제 등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는지 질의.



고남중
(예산1, 자유선진)

▶ 신입생 모집시 시·도나 지역별 할당은 어떠한지 질문과 중국어 관련 교육을 지역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



김성중
(계룡1, 한나라)

▶ 현 정부에서는 영어 공교육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의.



박정희
(비례, 자유선진)

▶ 우리나라는 사교육 열풍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문제가 심각하며, 사교육을 받는 민족사관고등학교생이 있는지 질의.



송영철
(논산2, 한나라)

▶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과 영재와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민족사관고등학교만의 독특한 교육방법이 있는지 질의.



이기철
(아산1, 한나라)

▶ 고등학교 교육은 학업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서중철
(비례, 통합민주)

▶ 농어촌폐교학교의 문화공간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농어촌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결손가정학생에도 적용되는 방안질의.



홍성현
(천안1, 한나라)

▶ 1년 학비는 얼마이며,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는지, 학생 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졸업 후 대학 진학율에 대하여 질의.



황화성
(비례, 한나라)

▶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많은데 이를 위해 특별한 교육방법이 있는지 질의.

알면 득이되는 생활상식

▶ 간전지를 오래 쓰려면

간전지는 사용하지 않는 라디오 등에 끼워 두기만 해도 전기가 자절로 흘러 방전된다. 따라서 간전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빼내어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 쓴 간전지는 깨끗한 종이에 싸서 땅 속에 묻어 두었다가 10 여일 뒤에 꺼내면 며칠은 더 쓸 수 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 위원들이 지난 4월 15일 수산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강철민
(태안2, 한나라)

▶ 앞으로 유용미생물은 농업뿐만 아니라 가정과 생활 환경개선에도 배제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 깊은 관심을 표시.



이정우
(청양1, 자유선진)

▶ 새로운 수산 종묘생산 기술의 개발 보급과 환경 자원조사 및 수산물의 질병연구 등을 통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



강태봉
(아산2, 한나라)

▶ 충남농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



송덕빈
(논산1, 자유선진)

▶ 앞으로 수산 연구소가 운영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산 산업의 전략 기지로 발돋움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 당부.



오배근
(홍성1, 한나라)

▶ 수산연구소는 2006. 4월 국립보령 수산종묘시험장을 인수하여 우리 고장의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적극적인 활동 당부.



오세욱
(서천2, 자유선진)

▶ 농업 기술 센터가 EMDML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EM생산 시스템 구축과 기술보급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 강조.



이종현
(당진2, 한나라)

▶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 EM 활용을 생활화 한다면 농업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

▶ TV 화면 먼지 제거하려면

▶ TV 화면 먼지 제거하려면

텔레비전의 화면은 날마다 닦아도 또 쌓일 정도로 먼지가 잘 생긴다. 이것은 텔레비전 화면에 발생하는 정전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화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싶을 때는 길래에 정전기 방지용 액을 조금 묻혀서 닦는 게 효과적이다. 오디오를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좁은 곳은 면봉을 이용하면 먼지가 쉽게 닦인다.

건설소방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은태) 위원들이 지난 4월 17일 도청이전 신도시 예정지역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이은태
(홍성2, 한나라)

▶ 국·내외 유사사례를 벤치마킹 및 연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조치연
(계룡2, 한나라)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도청이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



김동일
(보령1, 자유선진)

▶ 충남개발공사, 주공, 토공 등 3사가 보상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자금 확보대책과 보상금 문제점은 대책 요구.



김석곤
(금산1, 자유선진)

▶ 도시 곳곳의 저수지 등 물 공급 계획과 대책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구.



김홍장
(당진1, 통합민주)

▶ 도청신도시 건설계획은 충남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일로 명품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유병기
(부여2, 한나라)

▶ 도청이전 건설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 건의 사항과 현재 확보 추진 상황과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 계획은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고 질의.



유환준
(연기1, 자유선진)

▶ 물 공급 대책은 있는지와 금년까지 도에서 지원한 예산 현황과 보상가액 산정 방법 및 대책에 대해 질의.



이창배
(서산1, 한나라)

▶ 도청이전예정지 지역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시 마찰을 최소화하고 홍성, 예산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당부.



정순평
(천안2, 한나라)

▶ 도청이전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에서 예산, 홍성의 원도심 개발 지원 대책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

▶ 변기 냄새는 상항 한 개비를 태워서

변기를 사용한 후 냄새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상항 한 개비를 꺼서 태운다. 그러면 상항을 연소시키는 성분의 냄새가 화장실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해 준다. 또한 밀린 곳에 향수를 뿌려 화장실 벽에 걸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회사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주민피해 최소화해야



김문규
(충청남도의회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제214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

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 당선되신 국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기간동안 있었던 불협화음을 깨끗이 해소하고 국민들이 화합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5일은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나무심기를 권장하는 식목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목행사가 무색하게도 전국적으로 여러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가꾸어온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숲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물과 공기를 정화하고 토사유출 방지와 산림휴양 등 무한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 합니다.

우리 모두 산과 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잘가꾸어 나가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서 우리 고장 인접 지역인 전북 김제와 정읍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염

병이 발생되어 우리 축산농가에도 많은 걱정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즉각적인 비상방역체제를 가동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있지만, 전염병이 완전하게 소멸될 때까지 관계기관 모두가 많은 역할에 따라 차단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해안 유류유출사고 특별법안 통과로 피해보상과 항구 복구에 근간을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문제와 어업활동 재개 등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1/4분기가 지나고 2/4분기가 시작된지도 십여일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구상

했던 일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는 2009년 예산심의가 4월부터 시작되는 시기이니 만큼 내년 우리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가야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회기는 8일간의 일정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 안전처리와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주요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하여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도민들의 의견과 민생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

▶ **황우성**(연기)의원은 동북아 경제시대를 대비해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로 건설되는 수도권 전철화사업 구간을 ‘천안~조치원~충북선이용~청주공항’ (총 연장 57km)으로 연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천안~청주공항’ 간 신설노선 보다는 우회하게 되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설노선보다도 사업비가 훨씬 적게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조치원을 경유하는 사업구간이 완성되면 천안·아산의 IT산업, 충북 오송·오창의 BT산업, 연기 중부내륙의 물류산업, 대덕특구로 이어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과도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50만 규모의 세종시를 자속기능이 갖추어진 세계적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철도건설 계획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

▶ **김성중**(계룡)의원은 현재 세계적으로 스포츠페스티벌이나 이벤트 횡수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요도 증가 추세이다.

이러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춘천시가 ‘국제여가심포지엄’과 ‘전국레저경기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레저도시로의 급부상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스포츠경기장 시설

을 선수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각국 전지훈련팀 유치에 제주, 강원, 부산, 전북, 인천, 경기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유치에 성공했거나 이미 훈련을 다녀갔다.

충남도 베이징 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서 올림픽 특수가 본격화 되기를 기대하고, 유치가 어렵다면 경제효과가 있는 스포츠 관광 축전계획을 도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 **백낙구**(보령)의원은 충남도의 경우 소방안전본부를 비롯 1개의 소방학교와 12개의 소방서, 42개의 안전센터, 134개의 지역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관서 점유 재산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부지 등 대부분이 타 소유 재산으로 되어있다.

소방업무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이관된 지 16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건축된 지 최장 30여년이 지나 소방관서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증·개축할 경우 재산소유권자의 사용승락서 징구가 전제 되어야 하는 등 향후 마찰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시·군에 산재한 도유재산과 소방관서가 점유하고 있는 타소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안과 교환이 불가능 할 경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창배**(서산)의원은 서해안 유류사고 생계비 지급과 관련, 실제 피해어민 위주로 생계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군별로 자율성을 부여해 지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도에서 획일성 있는 지침 시달이 필요

하고, 생계비가 많은 사람은 670만원이고 적은 사람은 70만원으로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道에서 일관성 있는 지시를 촉구하며 생계비가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

▶ **김석곤**(금산)의원은 태양열 주택보급 확충 등 천연자원을 활용한 많은 에너지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온난화 현상 등의 영향으로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새삼 증대되는 시점에 태양열·지열·풍력 등이 연구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예산과 시간을 할애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개발이 계속 되어야 한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해 6개월 동안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9천 170만달러의 원유도입 절감효과가, 전경련에서도 최소 2조1천528억원(생산유발효과 1조2천900억원, 소비유발효과 8천628억원)의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절감되는 전기소비량도 0.3%로 약 86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서머타임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본다.

▶ **황화성**(비례)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2005년 121건, 2006년 113건, 2007년 239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07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사건 중 단일 차별 사유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 사건이 가장 많다는 점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번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충남도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장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귀감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유환준**(연기)의원은 참여정부가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는 평범한 논리 하에 강력히 추진해 왔던 공공기관 이전사업을 새 정부가 실용주의를 내세워 이를 축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 한다.

행복도시 축소 또는 변경 등의 언론보도에 대해 우려감을 느낀다.

행정도시 건설은 그동안 4만여 연기 군민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활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견디고 협의의 매수에 협조해 현재 토지보상률이 99.6%에 달하며 토지보상비만도 3조1천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투자됐다.

지난해 7월 착공해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질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사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걱정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개회사

황해자유구역은 동북아의 허브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심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낮 12시 40분경 보령시 죽도에서 갑자기 일어난 높은 파고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에 뜻을 전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들어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나 안전사고에 대하여 우리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결과와 우리고장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방역대책상황실을 긴급히 방문하여 초동방역조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적극적인 방역대책과 예찰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히 소멸 될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양계농가 보호에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차단방역활동과 현장에 투입되어 방제활동을 펼쳐 주신 군, 경찰,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그동안 우리도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최종 확정되는 쾌거가 있었습

니다.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부품 산업과 전자정보산업단지 그리고 물류 및 관광위락 기능을 겸비한 서해안권의 경제 중심지역으로, 동북아의 허브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종 확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기도 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화만사성”이라 하여 가정의 소중함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워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가정에 대한

관념과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혼률이 증가되고 생계를 꾸려야 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수도 늘어만 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병리 현상을 극복하고 건강한 가족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가 애정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 이번회기는 8일간의 일정으로 도정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심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

▶ 이창배(서산)의원은 서

해안 유류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에게 팔봉산 일요장터 개장 등 대체 일거리를 창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팔봉산 인근 4개면 주변 8개 읍·면 어민들에게 팔봉산 일요장터 개장 등 대체 일거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며 추경에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서산시 부석면 창리 포장마차 철거와 관련해서는 강제철거로 약 4억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놓고 대책이 없다고 질타하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왜 서산지역만 집중 단속하는지, 지금 유류 피해로 바다에 나가 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죽은 바다가 살아날 때까지 만이라도 국유지 임대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서중철(비례)의원은 지난 1991년 도정질문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최초로 거론했던 한 사람으로서 도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홍성과 예산의 구도심 공동화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5월 7일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도청이전본부에서 구도심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신도시를 중심으로 각 기관 이전을 반경 10km 이내로 분산 배치해 지역균형발전과 예산·홍성의 구도심과 연계해 상생발전될 수 있도록 176개 각급 기관 단체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도청이전본부는 가까운 근교로 분산 배치해 구도심의 공동화 우려에 대한 후속 조치가 道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오세옥(서천)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및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질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쇠고기 수입시 광우병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한우 생산농가 붕괴와 양돈농가의 도산까지 우려돼 재협상을 요구하는 각종 집회가 열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다.

5월9일 현재 전국적으로 64건의 AI가 발생해 양성 및 음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에서는 2건이 양성과 음성으로 각각 판정돼 예방차원에서 25만4천마리가 살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가에 대한 특별방역과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우리 지역에서 더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이선자(비례)의원은 지난달 학부모의 신고로 밝혀진 대구의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왜곡된 성문화가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어린이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충남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 29개 지침 중 20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9개 지침은 수정 시행토록 시달한 것으로 안다며, 학교장이나 학교의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우열반 편성, 0교시 수업금지’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질의했다.

▶ 김동일(보령)의원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파동으로 소값 하락은 물론,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료값 부담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에 미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대책을 촉구하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기름유출사고와 유가인상, 사료값 폭등과 AI확산, 한미FTA 협상추진 등으로 농·어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성장 동력사업인 어촌 환경 개선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중·양식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기철(아산)의원은 아산-서울간 고속버스 노선을 살펴보면 아산에서 천안간 거리가 20km에 불과한 짧은 거리임에도 이동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며 새로 확·포장된 45번 국도를 이용해 둔포-평택-안성 IC를 거쳐 서울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둔포지역을 비롯한 아산 서북부 시민들은 서울에 가기위해 평택으로 올라

가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아산 서북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둔포지역에 간이 고속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이창배(서산)의원은 태안 유류피해 관련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자료가 비공개 자료인지, 도의원이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름을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공개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에서는 생계비 지원에 대해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하고 각 시·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지 해당 시·군 게시판에 공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 이종현(당진)의원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마리당 60만~70만원씩 늘었음에도, 600kg기준 암소 한 마리 평균가가 485만원에서 급락해 454만원 수준으로 한 달 사이 30만원이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연리 3%에 1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충남도에 총 1천501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

대출금 상환 기간이 짧아 대출금을 1년내에 갚으려면 또 다시 고리의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충남도에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

임시회 의정결산

214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보령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및 강경~연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4개소에 대해 현장을 둘러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소관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또한, 충청남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했다.

215회 임시회

지난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를 열고 총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으며, 타시도 교육·복지시설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벤치마킹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으로 도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을 선임하였고, 쇠고기 수입개방과 황해경제자유

구역 지정 등에 따른 집행부로부터 당면현안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14회 주요안건처리현황

충청남도결산감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결산감사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그 밖에 인용부호 표시, 약칭 사용 및 자구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제215회 주요안건처리현황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거 인삼의 해외전시·홍보·마케팅 등 해외시장 개척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 전문기관에 대행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안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체육 활동을 원만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를 장려·보호·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 2008년 5월 6일(관보 16744호) 충청남도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일원 5개 지구 5,505만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계획 및 민원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있어 운영과정상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 급변하는 도시개발 속도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주민편의 증진을 통하여 행정능률 극대화 및 도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
- 도정의 한시적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책정된 일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개정.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충무시설 등 도청이전 재원 마련 등을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잡종 재산 처분 등.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천안시 일반구 설치 승인(2007. 12. 14.)에 따른 도세 부과·징수 사무 위임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방식을 현행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도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천안시 일반구 설치 승인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 사업소장에게 위임 범위를 확대함.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준칙」표준안이 송부되어 지역교육청에서 설치 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설립에 정지 선전시 주변지역이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 심의.
- 위원회 심의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임기 보완 등.

충청남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06. 4. 20)에 따라 백제역사문화관장으로 되어있는 사무위임 등의 주체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 관람료 할인 및 다국어 안내기 대여의 근거 규정을 둬으로써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백제역사 문화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

충청남도 학교용지 부담금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 분양공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수용하려는 것임.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도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호주주 방문

충청남도의회 김문규의장 등 대표단 일행은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호주연방 남호주주를 공식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은 남호주주 의회 잭 스넬링 하원의장의 초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충청남도의회와 남호주주 의회간 실질적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양의회간 주요관심사에 대한 협력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의견 개진과 논의를 했다.

주요활동으로는 5. 28일 남호주주 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잭 스넬링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09년에 개최되는 안면도꽃박람회 참가요청 등 양 의회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앞으로 인적교류 중심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동반자적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州 소방본부, 와인연구소 및 포도생산단지, 에들레이드 교육청, 솔즈베리 시의회 및 주정부 무역경제발전국 등을 방문하여 우리도의 투자유치 관련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지역 및 인센티브 등 투자여건 설명과 상호 경제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 했다.

한편, 남호주주 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01년도에 교류협정을 체결하였고, 지난 2004년도에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남호주주의회를 방문하여 교류협력 증진과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지원 특별위원회활동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위(위원장 유익환)는 5월 13일 오후 제5차 회의를 열고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의 회생 방안인 『서해안 살리기』 사업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지난 '06년 안면도-원산도-대천자구를 잇는 서해안관광벨트 조성 사업의 재원구조가 균특재원으로 되어있어 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순수 국비로 전환추진되도록 중앙부처를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와 ▲'07년 10월 기공식을 가진 『태안 기업도시』가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에 따라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는지와 이에 따른 부남호 준설사업 및 주 진입로 개설 등에는 지방비 부담이 많은데 이에 대한대책을 물었고 ▲보령 신흥동에서 태안 고남면을 연결하는 『안면도 연육교』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2010년 공사착공에 문제는 없는지를 물었다. ▲지난 2월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일부 주민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 개정을 원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와 시행령 제정 공포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을 관찰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물었다. ▲IOPC(국제기금)의 피해액 발표가 있었을 때 충남도에서는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는데, 도에서 추정하는 피해액에 대한 추정치를 갖고 있는지와 ▲현재 기름방제에 참여한 주민들이 방제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정부 보증을 통해 특별 용자 후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해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실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앞당겨 세웠어야 했는데 6월 추정으로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며 ▲영세 무면허 어업인들에 대한 양성화 대책과 이를 추진시 어민의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추진토록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권희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등 관계공무원은 ▶정확하지 않은 피해액 추정치가 IOPC 피해액 사정액과 차이가 날 경우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도에서는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피해액 산정시 IOPC 사정액으로 하지 말고, 국내 전문가들이 사정한 사정액으로 하자는 이유 등에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제 인건비의 경우 지난 4. 28 인건비 청구를 완료했으며, 한 국해사감정을 거쳐 IOPC에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려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는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생태복원을 위한 미생물 처리법 등 신공법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형식승인이 나오는 대로방제 및 복원에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익환 특위 위원장은 『서해안 살리기 프로젝트』사업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 특별위원회 활동

농공단지수준의 내륙산단 치우고 원안추진 용의 없나



충남도의회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오세옥)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회의를 열고 정부대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충남도의 역할에 대한 각종 질의를 쏟아냈고 이어서 공석 중인 부위원장에 이정우 의원청양1, 자유선진당)을 선임하였다.

이정우 의원(청양·자유선진당)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경우 '08년도 예산이 282억 확보된 결로 이는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던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흡수통합 된 바 향후 예산확보에 문제는 없겠는지?

김성중 의원(계룡·한나라당)은 ▲장항산단의 경우 3차례에 걸쳐 면적이 축소되었고, 현재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

충청남도 입장에서 아직도 정부 대안사업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백낙구 의원(보령·한나라당)은 ▲'89년 군장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숲한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대안사업으로 변경되나, 이는 국가사업으로 충남도가 관여할 부분이 있는지?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까지 30개의 법률과 34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서천군민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으로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당초 우리의 목적인 산업단지 조성이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송선규 의원(서천·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원안착공을 반대하던 환경부, 해수부가 대안사업이라고 생태원 및 자원관을 서천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두 기관이 고용 창출 세수증대 등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부에서 토지공사에 연간 배당을 하향 조정을 통해 500억씩 4년에 걸쳐 분양가 하향에 쓴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 할 수 있다고 보는지? ▲현재 정부의 공기업 합병과 방침에 따라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합병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체결된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내륙산단이 80만평이라고 하지만 도로, 녹지, 주거용지 등을 빼면 농공단지 수준이다. 이를 과연 국가산업단지라 할 수 있는지? ▲충남 16개 시군은 각 지자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각의 성장동력을 갖고 움직이는데, 오로지 서천군만이 아무것도 없다. 대안사업이 실패치 않을 경우 원안을 강력히 재추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은 산업단지 특별법이 9월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고,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 및 규칙이 정해질 것으로 안다. “충남도의 입장에서 내륙산단 조성에 성의를 갖고 빠른 시일 내 착공되도록 하겠다” 답변했다.

도와 교육청 결산감사 실시

충청남도 결산감사위원 대표위원에 정종학 의원 선임



9명으로 구성되어 충청남도과 교육청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5.21일부터 6.9일까지 20일만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했다.

정종학 대표위원은 충청남도의 2007 회계년도 결산액 3조 5,824억 7천만원과 충남도 교육청의 2조 1,857억 4천만원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충청남도의회는 충청남도과 교육청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 정종학 의원(천안4·한나라당)을 선임했다.

결산감사위원은 도의원 3명,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전직공무원 2명 등 총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와 부속서류 내용에 결산관련 제반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각종 사업의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법성·효율성 ▲기금운영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수산경제위원장에 강철민의원 당선 “서민경제 안정화 기여 제반여건 조성”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문규)는 4월 14일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식중이던 농림수산경제위원장 보궐선거에서 강철민의원(태안2·한나라당)이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농업·농어촌의 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남농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어업 환경에 대한 변화를 촉진하고, 충남의 성장동력 창출과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은 물론 서민 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故 송민구 도의원 도의회장 영결식 엄수

탁월한 지도력으로 농촌 권익보호 앞장

고(故)송민구 도의원 의회장 영결식이 4월18일 도의회 앞마당에서 김문규 도의회의장, 이완구도지사, 오제직 교육감, 도의원, 도단위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영결식은 영정안치와 고인에 대한 묵념, 고인약력보고, 영결사및 조사, 추모사낭송, 고인육성 근청, 헌화 및 분향, 유족대표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고(故)송민구 도의원은 농촌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 농촌의 권익보호에 앞장선 우리 고장의 뛰어난 지도자였다.

실제로 김문규의장은 영결사에서 “도의회가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농업발전을 위한 고인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8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도의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 놓았고 7대



의회에서는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농수산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불꽃같은 열정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고인의 유언은 “농촌을 살리는데 우리 가족이 적극 동참하리라”는 말과 “나는 선영에 수목장(樹木葬)으로 해달라”는 뜻에 따라 공주시 탄천면 대하리 선영에 수목장으로 모셔 조문객들의 장례문화 변화에 마지막 심금을 울렸다.

6.4 재보선

전인석·박종근 도의원 당선



전인석
(자유선진당)



박종근
(자유선진당)

지난 6월4일 전국 52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6.4 재보궐 선거에서 충남지역 광역의원으로 공주 제1선거구와 부여 제1선거구에서 전인석(65·자유선진당), 박종근(50·자유선진당)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소감에서 전인석 당선자는 이번의 승리는 공주시민 모두의 승리이며, 공주도 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갈망이 담겨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활력있는 공주, 품격 높은 공주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박종근 당선자는 부여군민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끝까지 땀흘려 도와준 지지자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 오직 부여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는 뜻을 받아 드려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특위 위원장에 유익환 의원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익환 의원이 선임됐다.

유위원장은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서해안 지역의 어장파괴와 환경오염, 관광객 감소 등 피해가 크다”며 “보상 및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유위원장은 또 “지난 4월2일 정부가 입법에고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의정 전문지식 습득·지방의회 기능강화 계기 마련

충남도의회사무처(처장 박유신)는 4월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지방의회 입법담당공무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지방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자치입법 실무 등 입법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방안을 모색하며, 담당공무원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선진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리로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과 최만수 국회 입법정보실장,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웅 과장이 참석해 자치입법 실무와 지방의회 보좌기능 강화방안



▲ 지방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가 4월 30일 보령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등에 대한 실무 강의를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입법 실무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 보좌실무 ▲지방의회 의전·경호·홍보 의정실무 ▲지방의회 운영 전반 및 행정사무 감사·조사 착안사항 ▲현장 실무에서 경험한 예로 사항에 대한 토론 등으로 꾸며졌다.